

## Dave Mathewson 박사, 해석학, 강의 12, 텍스트 중심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우리는 성경 해석에 대한 역사적 접근 방식의 한 측면, 즉 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해석의 주요 목표로 보는 측면 중 하나로 저자의 의도를 논의해 왔습니다. 두 명의 역사적 인물, 특히 저자의 의도와 관련하여 알아야 할 한 사람을 우리는 해석의 주요 목표로서 저자의 의도를 탐구하는 데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 프리드리히 쉐라이어마허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연구와는 완전히 다르지만 흥미롭게도 저자의 의도에 대한 이해를 성경 학자들이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개인이 ED Hirsch입니다.

ED Hirsch는 해석의 타당성(Validity in Interpretation)이라는 초기 책에서 의미와 의미를 구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Hirsch는 의미란 저자가 텍스트 자체에 새겨진 대로 전달하려고 의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작가가 거기에 부여한 의미이고, 작가가 언어 상징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의미이며, 작가가 전달하고자 했던 것을 드러내는 텍스트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원래 의미는 저자의 의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Hirsch가 말했듯이, 본문의 중요성은 대부분의 성경 신학자와 학자들이 적용이라고 표시하는 사실상 다른 모든 것에 대한 그 의미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의미란

저자가 원래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고, 의미는 그 의미를 현대적 맥락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허쉬는 특히 텍스트에 드러나고 텍스트를 통해 전달되는 저자의 의도, 즉 저자가 텍스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의 중요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Hirsch가 의미를 부여한 다른 모든 상황. 그리고 특히 성경 해석가들이 텍스트의 의미와 그 지속적인 관련성과 현대 독자에 대한 적용을 구별하기 위해 의미와 중요성 사이의 구별을 선택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자의 의도가 해석상 가치 있고 필요한 목표라고 주장하는 데 많은 이유가 사용되었지만, 반면에 일부는 다양한 이유로 저자의 의도를 타당하거나 심지어 타당하다고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해석의 필요하거나 가능한 목표.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반드시 쉽거나 자동적이거나 간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저자의 의도를 철저하게 또는 완벽하게 포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그들은 여전히 그것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저자의 의도를 해석의 가능하거나 필연적인 목표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면 왜 일부 사람들은 해석의 목표로서 저자의 의도를 거부했습니까? 왜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타당하지 않거나 해석의 목적이

아니라고 확신합니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목록은 완전한 목록이 아니라 단지 가능한 반대 의견 중 일부를 포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저자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저자가 전달하려는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저자의 의도를 거부했습니다. 특히 더 이상 생존하지 않은 저자의 경우, 그들이 의미한 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그들과 상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자의 의도에 대한 일부 초기 반응은 저자의 사고 과정이나 저자의 마음, 저자의 의도를 재현하거나 회복하려고 시도하고 저자의 생각에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의도적 오류라고 공식화했습니다.

한번은 영국에서 유명한 신약성서 학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의 책, 그가 쓴 책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한 문장을 인용하고 인용한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말했나? 그게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살아 있는 작가들조차 때때로 그 의미를 모르거나 잊어버린다면, 더 이상 살아 있지 않은 작가들, 특히 현대 해석가들보다 2,000년 이상 전에 쓰여진 텍스트는 얼마나 더 많은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작가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가가 무엇을 생각하고 의도했는지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더 이상 살아 있지 않은 작가들은 작가의 회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의도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종종 의도적 오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저자가 적절하게 의사소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부 저자는 무능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저자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고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의도치 않게 독자를 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자의 의도는 회복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

또 다른 반대 의견은 때때로 저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작가가 무언가를 말할 수도 있고, 여러분은 그 작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반응은 다음과 같을 수도 있고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니,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확실히 말이 되며 저는 그것을 제가 말한 것에 대한 유효한 읽기나 해석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많은 작가들이 책을 썼습니다. 특히 제가 생각하는 책은 학생들이 자신의 텍스트와 작업을 읽고 저자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는 해석을 내놓는 사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통찰.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당신이 말한 것을 누군가가 해석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니오,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말한 내용에 대한 유효한 이해입니다. 나는 그것을 내가 말한 내용에 대한 진정한 이해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저자는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잘 소통하고, 독자는 때때로 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내용을 텍스트에서 발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트의 유효한 해석과 의미에 동의할 것이기 때문에, 죽은 저자의 경우에는 얼마나 더 많은가요? 이 의미를 의도했는지 여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 의미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여기에 있지 않은 저자입니다.

그래서 작가들은 종종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 오늘날에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소통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따라서 작가의 의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불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 다시 말하지만 이들 모두가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부는 관련이 있지만 주로 더 많은 문학 연구에 기원을 둔 또 다른 이유는 텍스트가 그 자체의 생명을 가지고 자유롭게 떠다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작가가 글을 쓰면 이제 그것은 작가의 삶에서 단절되어 그 자체의 삶을 갖게 됩니다.

즉, 저자는 더 이상 그 정확한 의미를 결정하는 데 발언권이 없습니다. 이제 텍스트는 그 자체의 생명력을 갖고 있으며, 그러면 독자는 아마도 텍스트를 이해하고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텍스트는 자율적이기 때문에 고유한 생명력을 갖고 자유롭게 떠다니는 실체이기 때문에

저자의 의도는 회복할 수 없거나 적어도 저자의 의도에 우리 자신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작가의 의도가 여전히 유효한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제안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작가의 의도에만 국한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반론은 해석자들이 종종 같은 본문에 대해 서로 다른 의미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작가의 의도가 진정으로 일차적 목표이고, 정말로 타당한 목표이며, 회복 가능한 목표라면, 해석자들은 왜 텍스트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 걸까?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고 하루 24시간의 문자적인 7개의 창조 기간을 확신하며, 왜 다른 사람들은 같은 본문을 읽고 훨씬 더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일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는가? 시간? 왜 일부 독자들은 요한계시록 20장과 천년왕국 본문을 읽고 그것이 천천년설을 가르치고 있다고 확신하는 반면, 다른 독자들은 저자의 의도를 따라 같은 본문을 읽고 무천년설을 확신합니까? 아니면 왜 일부 독자들은 히브리서 6장의 잘 알려진 경고인 히브리서 6장을 읽고 그것이 알미니안주의 관점에 적합하다고 확신하고, 다른 독자들은 같은 본문을 읽고 그것이 칼빈주의를 지지한다고 확신합니까? 또는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1장과 디모데전서 2장의 잘 알려진 성별에 대한 구절을 읽고, 어떤 사람들은 안수와 담임목사의 역할을 포함하여 어떤 형태의 사역에도 여성이 참여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같은 본문을 읽습니다. 저자의 의도에 따라 여성이 사역에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제한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해석가들은 본문에 대해 서로 다른 의미와 해석을 내놓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저자의 의도를 찾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독자들에게 저자의 의도를 찾은 다른 해석을 내놓으라고 제안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자의 의도가 회복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다른 예가 있을 수 있지만, 신약성서 저자들은 종종 구약성서 본문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장까지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다루는 많은 문제 중 하나를 다루면서 독자들을 구약 세대의 하나님 백성에 비유합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에 바울이 이같이 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사실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실 때와,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실 때를 기억하십니까? 이제 이 말을 들어 보십시오. 그들은 동일한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과 함께 있는 신령한 반석에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돌아가서 원래의 이야기를 읽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방황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찾아보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사야서 7장을 인용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인용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러나 이사야서의 원래 문맥으로 되돌아가 보면, 적어도 언뜻 보기에는 그것은 기독교론적인 본문도 아니고 다가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예를 보고 신약성서의 저자들조차 구약성서에서 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회복하는 데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저자의 의도는 불필요하거나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무효이거나 최소한 저자의 의도에만 해석과 의미를 제한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관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작가의 의도를 어떻게 말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작가의 의도는 여전히 유효하고 필요한 목표인가? 저자의 의도가 여전히 가치 있고 필요하며 유효한 목표라고 생각하는 저자의 의도에 대해 몇 가지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비록 우리가 솔라이어마허가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거나 과거에 가끔 취급되거나 추구되었던 방식으로 그것을 추구하거나 추구하지 않더라도, 우선 제가 할 첫 번째 관찰은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문이 인간의 산물이자 신의 산물일지라도 그것은 저자의 의도가 여전히 타당하고 필요한 목표. 만약 하나님이 그의 말씀 뒤에 서 계시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안정된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전하고자 하신 뜻이 거기에 두셨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백성들이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응답하기를 기대하시므로 의미에 대한 완전한 회의주의와 저자의 의도 또는 의미 회복에 대한 불가지론은 성경의 영감과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쉽다는 뜻, 결코 의견 차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미가 철저하게 또는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성경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을 고려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미가 있음을 시사하므로 그것은 여전히 유효한 목표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을 그 안에 두었습니다.

둘째, 작가의 의도를 이해할 때, 작가의 심리적 사고 과정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자의 의도에 대한 최근의 설명과 설명에서는 이를 피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목표는 저자의 사고 과정이나 심리적 상태 또는 마음의 의도를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자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자가 작성하고 생산한 텍스트인 제품입니다.

그래서 작가의 의도를 생각할 때 좀 더 미묘한 차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자가 텍스트에 인코딩한 의미입니다. 텍스트는 저자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저자가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는지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자는 특정 장소, 특정 시간에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시도했으며 텍스트는 저자가 독자에게 전달한 역사적인 의사소통 행위의 기록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행위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자가 작성한 텍스트를 고려함으로써 저자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탐색하고 설명하고 연구하고 밝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문법에서 드러나고, 본문의 구조에서 드러나듯이, 저자가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역사적 문서나 다른 역사적 사건과 마찬가지로 텍스트는 무언가를 하려는 작가의 의도,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작가의 의도에 대한 설명, 작가의 의도적인 의사소통 행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그 행위를 최대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저자의 마음에 들어가거나, 어떻게든 우리 자신을 그 안에 집어넣고, 저자와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저자의 의도에 대해 텍스트가 드러내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자의 의도에 관한 세 번째 관찰은 목표가 우리의 이해에 있어서 철저하거나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저자의 의도의 목표는 우리가 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어떻게든 철저하게 또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석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적절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한 것을 저자의 의미에 대한 철저한 설명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혼동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자의 의미를 완벽하고 철저하게 밝혀낼 수 없다고 해서 어느 정도 그럴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우리는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미묘한 차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의심의 해석학은 존중의 해석학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텍스트에 접근하거나 그것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존중의 해석학으로 대체해야 한다. 고대 저자에 대한 존중, 고대 본문에 대한 존중, 고대 문맥에 대한 존중은 우리가 해석할 때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Hirsch와 관련하여 이야기한 의미-의미적 구별에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는 텍스트가 말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 텍스트는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역사적 맥락에서 작가에 의해 생산되었으며, 어쨌든 우리는 부적절하지는 않더라도, 완전하고 철저하지는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성, 즉 그것이 어떻게 다른 맥락, 다른 독자, 다른 상황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복음주의자들이 흔히 적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의 해석학은 존중의 해석학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텍스트, 이를 작성한 저자, 텍스트를 가져온 역사적 상황 및 맥락, 텍스트가 생성된 환경에 대한 존중입니다.

다섯째, 저자의 의도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자멸적이라는 주장에는 어느 정도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래저래 그런 생각을 전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받기를 기대하는 방식으로 논쟁을 벌이고, 소통을 위한 방식으로 논쟁을 벌인다. 즉, 우리는 이해받기 위해 글을 쓰고, 성경 본문을 읽고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적어도 저자가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 문제는 의견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천년 왕국 문제인지, 여성 사역 문제인지, 방언과 예언, 기적과 같은 카리스마의 은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텍스트를 단순히 해석을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와 저자가 의도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해석을 근거를 두려고 시도합니다. - 간다. 그래서 해석의 목표로서의 저자의 의도, 해석학의 한 텍스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해석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저자의 의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하나의 텍스트라고 생각합니다. , 해석의 목표는 텍스트의 의미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텍스트의 의미는 해당 텍스트의 단어와 문법 구조를 통해 저자-편집자의 예상되는 의도와 의도된 독자가 해당 텍스트를 이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텍스트의 의미는 해당 텍스트의 단어와 문법 구조를 통해 저자-편집자의 예상되는 의도와 의도된 독자가 해당 텍스트를 이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정의나 설명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그것이 본문 자체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목표는 사고 과정이나 저자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까지 저자의 의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목표는 텍스트가 저자의 의도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의 표현이고, 본문의 문법적 구성이며, 본문을 둘러싼 역사적 상황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도 추가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자의 의도에 대해 뭔가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더욱이 확률의 언어에 주목하십시오. 이 정의는 철저함의 언어, 또는 완벽하게 또는 절대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또는 어떻게 해서든 저자의 의도를 밝혀내고 끝났다는, 우리가 그것에 도달했다고 확신할 수 있다는 언어를 피합니다.

하지만 나는 확률의 언어를 좋아합니다. 목표는 저자나 편집자의 예상되는 의도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때때로 텍스트는 편집자에 의해

모아졌을 수도 있지만, 가능한 의도를 이해하는 것은 텍스트의 구조, 문법 구조, 표현 및 다시 역사적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텍스트 자체와 연결됩니다.

저자가 글을 쓴 원래 독자가 무엇을 이해했는지, 저자가 독자의 시야 내에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는지에 비추어 그들이 이해했을 것조차도 저자의 개연성 있는 의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저자가 여기서 그가 의미한 바를 정확히 말해 주지 않으면 절대적인 확실성이 우리를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유명한 신약 학자와의 대화에서 제시한 예와 같이, 제가 제시한 예는 때로는 살아 있는 작가들조차도 자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이 의도한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인 확실성의 언어를 피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텍스트에서 2천년 이상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와 원래 맥락 사이의 일부 거리 때문에, 저자가 더 이상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텍스트 자체뿐입니다. 따라서 텍스트를 고려함으로써 우리의 해석이 저자가 의도한 것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표현하고 싶은 표현은, 어떤 해석이든 본문 자체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과 원저자, 그의 맥락, 독자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한다면 타당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텍스트 자체를 통해 텍스트의 구조, 문법을 포함하지만 이를 그의 맥락에 배치하면 저자, 맥락 내

역사적 상황, 독자, 문법, 텍스트의 구조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맥락,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엇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따라서 이는 원래의 맥락에서 원래의 의사소통 행위를 존중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라는 요청입니다. 텍스트로 무엇을 하든, 어떻게 적용하든, 어떻게 사용하든, 저자가 텍스트를 통해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묻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고 필요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텍스트. 이것은 또한 우리가 살펴본 말이나 해석에 직면했을 때 저자가 말할 수 있는 가능한 반응을 다시 생각하더라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상담할 성경 저자가 없지만 확실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 저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자가 내가 그런 의도를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보니 본문이 이해가 되고 나는 그것을 내 독서에 대한 타당한 해석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기는 여전히 텍스트, 문법, 단어, 텍스트의 구조, 저자에 대해 알 수 있는 것, 독자에 대해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등장한 역사적 상황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생산되었습니다. 그러면 해석학이나 성경 해석과 관련된 저자의 의도에 대해 몇 가지 결론적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추가적인 성찰에 관한 한, 저자의 의도는 해석에 관한 한 모든 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저자의 가능한 의도를 가능한 한 많이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코끼리나 기린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분명히 범위를 벗어났으며, 본문의 배경을 고려할 때 저자가 의도했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 그리고 그것은 매우 극단적이고 어리석은 예이지만 단지 경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심지어 저자의 의도가 필요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다고 말하는 일부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경계를 찾고 싶어 할 것입니다. 누가의 비유는 코끼리나 기린 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찾은 내용을 통해 더 일관되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둘째, 저자의 의도는 빈 텍스트의 낭만적 이상이나 순수 귀납의 계몽적 이상과 단순히 합리적 귀납 방법을 기반으로 의미에 도달하는 능력으로 돌아가는 아이디어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저자 의도의 목표는 아니지만 칸트와 다른 사람들을 시작으로 우리가 전제와 경향을 가지고 텍스트에 접근한다는 것을 함께 깨닫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빈 마음으로 성경 본문을 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단순히 새겨지기를 기다리는 백지 상태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우리의 해석이 다음과 같이 일치하도록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흡수하기를 기다리는 마른 스펀지가 아닙니다. 텍스트 자체의 의미와 일대일로 완벽한 방식으로. 내 생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목표가 아마도 달성 불가능하고

불법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자유로운 해석의 자유로 강등되거나 모든 일이 진행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대신 우리의 전제, 신학적 신념, 신앙, 문화적 배경은 모두 본문에 종속되고 본문의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본문의 의미를 철저히 또는 완벽하게 회복하는 것이 다시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여전히 작가의 의도를 실질적이고 적절하게 밝혀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냥 앉아서 객관적으로 글을 읽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도 글을 이해하기에 가장 나쁜 위치에 있을 것이고 아마도 글을 왜곡할 위험이 더 클 것입니다. 그들의 이전 신념과 경험, 성향이 텍스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제와 짐, 그리고 그것들 모두를 텍스트로 시작하고 가져오는 사람은 아마도 완전한 객관성을 가지고 텍스트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달리 아마도 그것들을 다루는 더 나은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전제와 신념이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넷째, 특히 저자의 의도에 비추어 해석은 해석자를 단순히 텍스트를 수동적으로 관찰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독자, 즉 해석자가 의미를 발견하는 데 적극적이고 창의적이라는 것입니다. 통역사는 본문에 해석 방법을 능숙하게 적용하는 데 적극적입니다. 독자는 텍스트를 해석하고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데이터를 흡수하기를 기다리는 스펀지가 아니라, 저자의 의도에 대한 개연성 있는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 텍스트를 읽어야 하고, 창의적으로 해석 방법을 적용하고 텍스트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변화시키며 그 의미를 드러내도록 함으로써 본문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약은 통해 빠르게 저자의 의도를 고려한다는 것은 텍스트를 고대 맥락에서 검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 비평 방법과 관련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저자와 그의 상황, 배경에 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독자와 그들의 상황 및 배경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텍스트가 성장한 환경,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환경에 대해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텍스트를 쓰는 동안 그 단어가 의미했던 바를 고려하여 단어를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문법을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텍스트가 구조화된 방식을 살펴보고 해석이 타당하려면 이 모든 것을 살펴보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해석이 유효하려면 저자에 대해 알려진 내용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독자에 대해 알려진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텍스트가 제작된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텍스트의 문법, 표현, 텍스트의 구조, 구성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럴듯한 해석은 모두 이러한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텍스트 자체에서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자와 독자, 그들의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의 해석을 타당하게 하기 위해 꼭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격 중 일부를 고려하고 이 논의를 통해 저자가 의도한 의미에서 시작하고 찾는 것이 타당하다는 가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저자의 마음을 읽거나 저자의 사고 과정을 밝혀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거리 때문에, 원하는 만큼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거나, 독자들이 오해할 가능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담할 원저자가 없다는 점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고려하고 저자의 의도를 완벽하게 또는 또는 철저하게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해서 실질적이고 적절하게 회복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한 자격을 갖추었다면, 작가의 의도는 참으로 가치 있고 우리의 해석에 있어 필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해석과 해석학의 방법을 통해 우리의 여정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비평과 역사 비평 내에서 출처 비평, 형식 비평, 편집 비평을 발전시킨 다른 비평에 초점을 맞춰 역사적 지향적 접근 방식에 대한 지난 몇 번의 세션에 집중해 왔습니다.

작가의 의도로 보면, 그것은 대개 텍스트의 역사적 생산을 살펴보며 텍스트  
이면의 의미를 찾거나 해석의 활동을 찾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제 나는 의미의  
초점으로서 텍스트 자체를 바라보는 것, 혹은 텍스트 내부를 바라보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싶다. 이것이 텍스트 중심의 해석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지향적 접근이나 작가 중심적 접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석에 대한 텍스트 중심의 접근 방식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 중 한두 명은 작가와 역사에 대한 질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못했지만 여전히 완제품으로서의 텍스트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들도 포함할 것이다. 나는 텍스트 자체를 해석의 대상이자 의미의  
중심으로 보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검토하고 싶다. 이제 저자 중심 접근 방식이나 저자 의도의 일부 단점으로 인해,  
저자의 의도에 대한 논의에서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일부, 다시 역사적으로 저자  
중심 접근 방식에 대한 일부 단점이나 반대 때문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해석학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배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역사적, 저자 중심 접근 방식에서 텍스트 중심 접근 방식으로  
이동했으며 다음 단계는 독자 중심 접근 방식이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그것은 종종 해석학이 문학 연구와 성서 연구 밖의 문학 분야  
모두에서, 그리고 성서 연구에서도 움직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제쳐두고, 여러분이 보게 될 한 가지는 성경 연구가 문학 연구보다 뒤쳐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학 연구나 심지어 독자 접근 방식을 개발할 때 종종 수행되는 작업은 성경 연구가 조만간 따라잡아 구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접근법 중 일부. 그래서 나는 해석학이나 성경 해석에 대한 텍스트 중심 접근 방식, 즉 텍스트 자체에 중심을 둔 의미를 찾는 접근 방식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시 저자 중심 접근 방식의 일부 단점에 기초하여 이제는 관심이 텍스트 그 자체. 그리고 이것은 특히 문학적 접근이나 문학 비평에서 다시 발견됩니다.

당신이 대학에서 문학 비평 과정을 수강한 적이 있다면, 그러한 유사한 유형의 접근 방식이 이제 성경 연구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문학적 접근 방식이나 텍스트 중심 접근 방식과 관련된 몇 가지 관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요점은 문학적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 접근 방식의 몇 가지 특성을 소개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구약성서, 성경문학까지. 우선 문학적 접근, 특히 텍스트 중심의 접근이 발전하면서 문학적 접근은 작가를 해석의 중심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텍스트만이 의미에 대한 유일한 안내자이자 이해를 위한 유일한 안내자라는 점에서 두 번째 관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자로부터 단절되었으며 이제 텍스트는 그 자체의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해석자들은 그것을 생산한 저자나 그것을 생산한 역사에 관계없이 텍스트 자체의 구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역사적 접근 방식은 저자로서 텍스트의 역사적 생산과 텍스트를 생산한 역사적 상황을 더 많이 살펴보았으며, 문학 연구에서는 종종 텍스트 자체의 권위를 이해의 지침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텍스트만이 의미에 대한 유일한 안내자입니다.

작성자의 글에서 잘렸습니다. 그것은 자유롭게 떠다니는 독립체이자 자율적인 텍스트입니다. 문학적 접근과 텍스트 중심 접근의 세 번째 특징은 텍스트의 형식적 특징과 구조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종종 텍스트의 최종 형태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은 텍스트 앞에 나오는 소스나 형식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은 최종 결과물, 즉 텍스트의 최종 형식에 중점을 둡니다. 그들은 형식을 분리하거나 텍스트 뒤에 있는 출처를 찾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성경 연구와 관련된 네 번째 특징은 성경을 문학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다른 문학 텍스트에 대해 묻는 것과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 환경에서 수강할 수 있는 텍스트의 문학 비평 과정에서도 동일한 종류의 질문이 자주 제기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특징은 역사적 질문이 종종 괄호 안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텍스트는 독립적인 단위로 간주되며 중요한 유일한 세계는 텍스트에 포함된 세계입니다. 텍스트 속에서 발견되는 세계는 텍스트 밖의 세계와 그다지 관련이 없습니다.

즉, 문학 텍스트는 종종 텍스트 외부의 세계가 아니라 텍스트 자체에 의해 창조된 세계인 자기 참조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서사 속의 특정 인물이 역사적 인물인지 아닌지, 또는 특정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여부에 대해 문학 연구가 관심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내러티브 구조 자체, 즉 텍스트가 참조할 수 있는 텍스트 외부의 세계가 아니라 텍스트 내부의 세계 자체의 구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질문은 괄호 안에 묶여 있고 본문은 자기 참조적이고 독립적인 단위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문학적 접근 방식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또는 텍스트 중심 접근 방식에서 더 광범위하게 적용할 몇 가지 접근 방식의 예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성서에 대한 문학적 접근 방식은 형식주의, 즉 실제로 1920년대에 등장한 새로운 비평과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종종 성경 연구는 다른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따라잡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형식주의 또는 새로운 비평은 다른 텍스트이든 성경 텍스트이든 문학 비평을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형식주의의 특징은 텍스트가 의미를 생성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지만, 텍스트는 자급자족합니다.

자율적입니다. 작가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작가에 대해, 작가가 글을 쓴 이유와 그것을 낳은 역사적 상황에 대해 질문하지 않습니다. 텍스트는 그 자체로 의미를 생성하기에 충분합니다.

둘째, 역사적 문제는 일반적으로 괄호 안에 표시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전에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텍스트의 세계는 자기 참조적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텍스트가 참조할 수 있는 텍스트 밖의 세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형식주의는 또한 미적 관심과 문학적 예술성에 주목합니다. 즉, 성경 연구의 경우 이는 다른 텍스트를 취급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텍스트를 취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 이야기, 욥기의 본문과 같은 성경 본문을 다룰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욥기를 읽지만 그 책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날짜나 기록 장소 등 저자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욥이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역사적

인물인지, 책에 기록된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사건인지, 그에게 조언한 친구들이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는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실제 화자인지 여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문학적 예술성과 텍스트 자체의 문학적 구조, 그것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 텍스트 내에서 등장 인물이 어떻게 묘사되는지에만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 자체이며,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이야기의 줄거리, 주된 관점, 그런 질문들이요. 모든 문학 작품에 대해 묻는 것과 같은 종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접근 방식은 서사와 시적 텍스트에서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구약성서에서는 특히 오래된 시적 텍스트, 서술적 텍스트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복음서와 비유와 같은 이야기 형식이 이것이 인기를 끄는 논리적인 장소였습니다.

아마도 형식주의나 문학 비평의 한 하위 집합이나 한 유형이 내러티브 비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관련하여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이전에 언급한 이유로 신약성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구약성서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마도 그 내용을 비교하기 위해 문학적 접근

방식으로 처리하면 다음과 비교하거나 대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역사적으로 지향적인 접근 방식에서 더 많이 다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서에서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창조 이야기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병치하는 것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스타일, 어휘 및 관점의 차이로 인해 오래된 역사적 지향적 접근 방식은 어떤 출처가 있는지, 즉 두 창조 이야기 뒤에 있는 출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이며, 심지어 더 나아가서 창조의 날짜와 배경에 대해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 두 이야기.

그러나 그 시도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 뒤에 있는 근원을 재구성하고, 그것을 올바른 근원, 즉 J 근원이나 E 근원 또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 뒤에 있는 무엇이든에 할당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대신에 이 본문에 대한 서술적 접근이나 문학적 접근은 대신 본문의 문학적 통일성을 지적하고 흥미롭게도 때로는 자료 비평가가 문서를 분석하는데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데이터가 문학 평론가는 그것의 통일성과 텍스트의 내부 작동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문학적 접근 방식은 텍스트의 통일성, 즉 문학적 통일성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물과 창조자, 땅과 씨, 저주와 축복이라는 주제와 창세기 1장과 2장뿐만 아니라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들이 하는 역할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이 실제 창조와 관련하여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대신,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아니면 하루가 더

길었는가, 아니면 간격 이론이었는가? 이것은 창조의 실제 과정에 대해 존재론적으로 무엇을 말해주는가? 역사적으로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주제와 그것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검토하고 텍스트의 문학적 예술성을 다시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저자가 다른 출처를 넣은 것인지, 이것이 우주의 실제 창조와 일치하는지, 어떻게 일치하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대신. 그래서 텍스트를 문학적 통일체로 보고 텍스트 자체의 구조와 내부 작용을 살펴보세요.

또는 또 다른 예로, 더 짧은 예로 룯기를 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물의 역사성에 대해 다시 질문하거나 활용되었을 수 있는 출처에 대해 다시 질문하거나 이 텍스트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기능했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야기로 읽음으로써 룯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그들은 줄거리, 이야기의 줄거리, 인물의 발전에 대해 질문을 하고 독자에게 미치는 미학적 효과에 대해 이야기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질문은 종종 문학 비평의 맥락에서 발견되는 일종의 전통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구약성서에서 특히 서사적 텍스트뿐만 아니라 문학 비평이나 형식주의의 눈을 통해 조사되는 다른 텍스트의 예를 늘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단순히 텍스트를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보고, 텍스트의 구조와 전개에 대해 질문하고, 텍스트 외부의 세계가 아닌 독립적인 텍스트 안의 세계로 보고, 역사 등

그냥 문학작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약성서에서도 문학비평은 주로 복음서에서 이루어졌지만, 문학비평은 서사문학과 복음서 밖에서도 범위가 넓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서사비평에 관해 이야기할 때 복음서를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언급한 신약성서의 문학 비평의 한 가지 예를 언급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가 제한된 우화, 즉 이야기 속의 주인공에 따라 하나, 둘, 세 가지 주요 의미를 갖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비유는 허구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비유는 문학 비평을 위한 유익한 연구 분야였던 것 같습니다. 즉, 비록 그것이 현실적이긴 하지만, 예수께서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결코 주장하지 않으시고, 그의 가르침과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일반적인 이야기를 끌어오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학비평은 비유의 구조나 미학 같은 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미 비유가 단원형, 즉 주인공이 한 명인 쌍형형, 주인공이 두 명이 있는 쌍형형, 또는 주인공이 세 명인 삼형형인지에 따라 비유를 검토할 수 있음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 명의 주인공이 있어도 문학 평론가들이 묻는 또 다른 질문은 등장 인물이 모두 동일한 역할을 하는지, 동일한 권위를 지닌 다른 두 인물을 매개하는 인물이 있는지, 아니면 구조가 더

수직적인지 여부입니다., 권위 있는 인물과 하인이 있는 주인과 같이 그 사람 아래에 다른 인물이 있는 경우. 그래서 그들은 비유의 구조, 등장인물의 기능, 그리고 그 비유의 구성 방식에 대해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유의 미학적 성격에 대해 질문합니다. 많은 비유에 비현실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이미 탕자의 비유에서 1세기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성격을 지닌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러 달려가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비유는 읽을 때 핵심적인 내용이 있고 미학적 효과와 호소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비유에 비극적인 것인지 희극적인 것인지에 대한 분류가 붙기도 합니다. 즉, 비유의 줄거리가 일어났다가 무너지는지, 아니면 비극이 될 것인지, 그 인물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지, 또는 비유가 겉보기에 슬픈 요소를 가지기 위해 아래로 내려가다가 나중에는 이야기의 주인공에 대한 긍정적인 결말.

그래서 비유는 종종 더 희극적인 것인지 비극적인 것인지에 따라 분류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비유를 포함한 문학 비평은 주요 요점이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독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 세션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아마도 신약성서의 문학 비평에 대한 또 다른 예를 더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서사 비평으로 알려진 문학 비평의 보다 구체적인 특징으로

나아가서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구약과 신약의 서사적 문학을 해석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